



만남

11

2021

통권 573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2021 아동부 찬양제 ‘우하하하’ 열려

아동부 찬양제 ‘우하하하’(우리들의 하모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이 아동부)가 10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열렸다. 대면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 가운데 진행된 아동부 찬양제는 코로나 19로 아동부 어린이들이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리틀스타’ 찬양제를 대신하여 열렸다.

‘우하하하’ 찬양제는 유년부와 초등부, 소년부 찬양대원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여 한 편의 영상으로 제작한 후 온라인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찬양제는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를 넘어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사진은 찬양제 시작 전 아동부 어린이들이 흥겨운 웃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약할수록 힘쓸 일 김운성

특집 **04**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선교부**

멈추지 않는 선교 **08**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이주형**

11 분장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 **이선경**

특별기획 **14** 2030 탈종교화의 원인과 대책

기획연재 **22**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찾아서 **편집부**

28 우리가 알아야 할 종교개혁이야기 **박지운**

다음 세대 **33** 웹툰 <그냥 더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화선**

36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미래예측 **이명호**

땅끝까지 이르러 **40** 보성(保聖), 거룩함을 지켜가다 **최정민**

영락의 울타리 **44**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이형진**

46 동행하는 가족 **박정운**

48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락경로원 **한경미**

50 시온찬양대 75년의 발자취 **나선환·송정석**

53 건강한 콩팥으로 살아가기 **이중건**

문화광장 **56** 은혜의 주님과 복의 균원 강림하사 **박신화**

59 아름다운 손길 II **김옥순**

교회소식 **60** 제2여전도회 군선교 후원 외

64 11월 목회력 /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영락수련원 겟세마네 정원의 만추. 겟세마네 정원에는 십자가로 상장된 예수님을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조형물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진 이상현 집사(영락포토)

약할수록 힘쓸 일

김운성 위임목사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기 17:7~8)

출애굽기 17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여 애쓸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신 사건이요, 8~16절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입니다.

두 사건의 분위기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은 처량하고 유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말렉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은 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공부할 때 두 본문을 구별해서 읽을 만큼 분위기가 대단히 상이합니다. 그러나 두 본문을 연결해서 읽으면 새로운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은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쉽게 망각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그들에게는 자유인으로서 자신들의 땅을 얻으려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넌 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와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다는 상황이 이처럼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렇게 약해집니다. 어떤 때는 신앙의 체험이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영적으로 권태기가 오고, 믿음이 다 식어버리고, 기도할 힘도 잃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약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가 싸우라! 약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

본문은 이에 관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약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약할수록 일어나 적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약할 때는 도망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자들의 싸움을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나이, 신장, 무기, 전투경험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약했지만 싸웠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자를 들어 높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에게 싸우라고 독려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는 약한 이스라엘이 강적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내부적으로 다투었을 때 뜻밖에도 아말렉이란 강적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구나 이때 이스라엘은 훈련된 병사도 없었고 전투경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다면 후퇴하거나 도망했

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싸울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가 싸우라! 이것이 약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탓하지 말고 적을 향해 달려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솔해서 나가 싸웠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의 첫 전쟁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들은 감격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닛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적 앞에서 도망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평계로 도망하는 자들이 아닌, 약할지라도 적과 싸우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도 적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더 약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후퇴하면 홍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가나안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도망하는 백성을 위해 홍해를 열어주실 리는 없었습니다. 또 홍해를 열어주신다고 하더라도 도망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애굽의 노예살이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 전쟁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강적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약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사탄과 싸우고 부정적인 모든 사고와 싸워야 합니다. 그게 약할 때 힘쓸 일입니다. **만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 2021 선교대회 선교전략세미나

선교부가 주관하는 선교전략세미나가 2021 선교대회 기간 중이었던 10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세미나로 열렸습니다. 농어촌선교, 해외선교, 군선교 사역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모색한 2021 선교전략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한데 모아 지면에 담았습니다.

제공 선교부

농어촌선교

1

선교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 최동규 교수(서울신학대학교)

한국의 농어촌은 희망과 절망,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목회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교회의 쇠퇴와 성장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농어촌의 목회 현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농어촌이라고 하면 인구가 점점 줄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어두운 현실만을 생각하지만, 꼭 어두운 현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귀농과 귀촌, 귀어 등 농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젊은 층과 장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농어촌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 강조되고 있는 ‘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라는 말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인식 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선교가 필수적으로 연관된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미셔널 처치의 역할을 잘 감

당하는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① 목회자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 머물며 목회를 합니다. ② 교회가 선교적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지니고 있습니다. ③ 지역사회와의 필요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④ 성육신적 선교를 지향합니다. 성육신적 선교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듯 선교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정도가 아닌 선교의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말로만 하는 복음 선포가 아닌 봉사와 희생이 함께 수반되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합니다. ⑥ 교회 안과 밖의 균형 잡힌 사역을 추구합니다. ⑦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농어촌교회가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농어촌교회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출 때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신앙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마을학교, 어르신 시설을 겸하는 교회 | 전필기 목사(하늘꿈동산교회)

선교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확장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도 균형 잡힌 치유나 회복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선교적 비전을 가진 교회는 사회 선교에 좀 더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의 선교 방향은 무엇일까요? 개혁교회(Reformed Church)란 말처럼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교회를 비롯한 작은 교회들은 이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이 교회 공간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하거나 낮은 밀집도의 마을학교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의 공동체

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선교적 공동체로서 장애인 시설과 노인요양시설로 예배 처소를 확대해 간다면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가 없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대안적인 공간으로서, 예를 들어 장애인 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새로운 선교와 예배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럴 때 장애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형편에 따라 적합한 예배와 선교의 모델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해외선교

1 국내 유학 온 학생에 복음전도 | 문성주 목사(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붙들고 국내 거주 해외 유학생 선교를 위해 해외 각국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인재

를 키워내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개국의 학생이 함께하고 있는 글로벌비전센터에는 유학생 사역으로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공동체 모임의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요일마다 복음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센터 내에 방과 후 교실을 마련해서 멘토링과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글로벌비전센터를 개원한 이후 센터를 통해서 많은 유학생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의료선교부와 사랑의교회 디아스포라 선교팀

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선교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힘쓰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M국 청년들 신앙의 열매 맺기 | 황관중 선교사(M국, 영락교회)

2009년부터 M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역은 청년사역, 선교훈련, 미전도 종족 선교, 현지사역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M국에 도착해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사역의 방향성과 관련해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었을 때, 주님은 청년사역과 관련한 소망을 많이 주셨습니다. 때마침 한국 드라마가 M국 안에서 큰 인기를 끌었기에 한국어교실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교실이 현지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데 큰 도구임을 깨달았고, 이후 한국어학원으로 확장했습니다.

2012년에 첫 예배를 드리고,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진로상담을 통해서 주일마다 20~30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 어학원과 상담소에 찾아오는 인원이 일

주일에 대략 1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순탄하리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계를 느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M국은 정치와 경제, 문화가 모두 불교와 떼어놓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진행할지라도 자국 종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청년이 있으므로 더욱 힘을 내어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친구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학생이 한국 땅 안에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그 유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군선교

1

탈권위 MZ세대의 마음을 열기 | 윤대운 목사(육군독수리교회)

‘M’은 밀레니엄 세대, ‘Z’는 Z세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탈(脫)권위적인 세대라는 점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새로운 정보의 접근이 편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권위들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세대는 ‘절대적’이라는 단어에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적인 생명과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병들은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저의 선교 사역도 이 마음을 담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략은 쉽게 말해서 ‘을’의 사역입니다. 갑과 을에서 ‘을’의 위치 말입니다. 모든 사역에서 존대하고 존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과 같은 계급사회에서 계급은 존중하지만, 병영 생활을 힘들어하는 장병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빛진 자’ 되는 경험을하게 됩니다. 말씀에 힌트를 얻어 봉어빵과 커피를 장병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사역,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역.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2

장병들을 찾아가는 ‘행복플러스’ | 김은경 목사(육군상승교회)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로 군선교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항상 최선과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군선교 현장에서는 수동적인 사역보다 적극적으로 장병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사역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장병들을 찾아가는 선교를 위해 ‘행복 플러스’라고 이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비전 설계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장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사화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생사화복’은 사람의 삶과 죽음, 화와 복을 뜻하는 말이지만 저희는 “생활관별, 4명 이상 예배

참여시, 화요일 밤에 군종 목사님이, 복주머니를 들고 찾아온다”라는 의미로 피자와 치킨 등 장병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생활관에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진짜 ‘생사화복’을 이야기하고 ‘생사화복’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 주변 교회를 함께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멈추지 않게 하소서! **만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 2021 선교부흥회를 참여하고 -

2021년 선교대회 주제는 ‘주여 멈추지 않게 하소서’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예배와 개인적 신앙생활만으로는 갈급했던 저의 심령을 꼭 짚어 내는 주제였습니다. 특히 10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3일에 걸쳐 인천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선교부흥회는 제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전하신 귀한 말씀의 주제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알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주 목사님은 다음 세 가지로 간명하게 요약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 안에 있으므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삶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 마지막으로 내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하시며, 이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진다면 주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으로 되새기며, 우리가 한숨 짓고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를 남겨두신 뜻에 순종하므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책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주승중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

부하고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주 목사님의 순교와 그 가정의 순종의 역사를 그 분의 손자를 통해 듣는 감동이 더해져서 더욱 크고 생생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첫째 날 사도행전 21:1~14절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향하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겪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고백하며 나아갔던 그의 담대한 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후반부에 조부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소개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뜻을 죽이는 가장 큰 고통을 치르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처절한 고통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예수님의 심정으로 자신의 노모와 병약한 아내, 네 명의 어린 자식들을 주님께 의탁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애끓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피맺힌 기도를 다 들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의 길을 축복하셨다는 목사님의 절절한 간증을 들으며,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승중 목사(인천 주안장로교회)가 선교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의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성령님 주시는 평안함을 위해 깨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오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찾기보다 세상이 정의내리는 나를 찾기 위해 때로는 내 자존심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부흥회 첫날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자

둘째 날에는 로마서 1:8~15절을 바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로마교회를 위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심정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첫사랑을 잊어가고, 유

혹이 많은 도전적인 상황과 내적 갈등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이 생기고 있던 당시 로마교회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라는 확신과 감사가 부족하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속죄 받은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 받은 감동을 되살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믿음의 교제와 나눔이 부족해지며 웅크려 엎드려있던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행위처럼 멸시하는 사회

일부의 따가운 시선에 저 또한 어리둥절 의기소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감동을 되살려 어깨를 펴고 외쳐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성도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며 내 영혼을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레데에 남겨두신 이유

마지막 날 디도서 1:4~5절을 바탕으로 이방인 이었지만 바울에게 ‘너는 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디도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본문을 통해 바울은 애제자 디도를 가장 어려운 곳, 속임수와 욕망으로 가득 찬 그레데 섬에 보냈으며, 디도는 원망하지 않고 자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의 그레데는 어디인지 생각해 보자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한반도의 분열과 갈등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가 한숨짓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우리의 그레데입니다!” 탄식하셨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타파하여 회복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우리를 지금 그레데와 같은 이곳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의식을 갖고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후반부에 조부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 강점기 조선 교회에 남겨진 디도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붉은 교도소 벽돌을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괴롭고 두려워도 도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남겨둔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일화

를 소개하시며, 사명자 디도처럼 우리도 탄식이 넘치는 그곳에 남아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강조하시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부흥회 내내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많은 이곳에서 상처를 치유하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남들이 버려두고 떠난다 해도 저는 떠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나를 두셨는가 원망하던 저는 지금까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욕심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힘들어하며 복음의 기쁨을 잊은 채 사탄의 유혹에 놀림당하는 불쌍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참회하며 이곳에 저를 두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눈물 흘려 고백했던 3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만날**



이주형 목사
강남교구
홍보출판부 홍보위원장

분장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

- 창작뮤지컬 <바울> 뒷이야기



저는 영락교회에서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나이로 27년 청년이며, 뮤지컬팀 위트니스에는 40대에 들어왔는데,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분장파트는 공연 당일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파트입니다. 분장하는 순간만큼은 저의 의지로 하게 마시고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늘 간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시작해도 늘 처음 하는 분장처럼 설레고, 두렵고, 떨립니다.

코로나19 방역 4단계로 인해 대면공연을 하지 못하고 영상공연을 올리게 된 이번 선교 대회 <바울> 공연은 특별했습니다. 영상촬영

은 오전 10시부터지만 분장 스태프들은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에 5시 반까지는 도착해서 세팅해야 배우들을 기다리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함과 아울러 그 시간까지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6시가 되자 배우들이 문화선교부 사무실 문을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뮤지컬 <바울>의 등장인물은 예수님, 바울, 앨루마, 노예 소녀, 스테반, 노예 주인과 4명의 남녀 양상블 등 총 10명입니다. 배우들의 분장을 시작합니다. 가장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조롱박처럼 매달려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려주세요” 기도하는 저의 모습은 조롱박보다도 작은 자로 변해있습니다.

분장실은 항상 즐겁습니다. 저와 배우들은 극중 인물로 변하는 중입니다. 배우들이 무대에 서기 전에 분장하면서 긴장감을 풀고 즐거워야 무대 위에 잘 설 수 있으며, 캐릭터에 걸맞게 분장이 되면 배우들도 더 자신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상공연 〈바울〉은 한 배우가 여러 명의 인물을 연기하므로 분장이 변해야 하고, 30여 년의 세월도 표현하기 때문에 촬영 중에도 계속 분장해야 합니다. 또 클로즈업하는 카메라에 맞추려면 인물분장을 더 디테일하게 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요. 새벽 6시에 시작한 촬영이 다음 날 새벽 1시에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의 방역수칙과 여러 환경을 맞추다 보니, 19시간이 지나서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무척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뒤 〈바울〉 1차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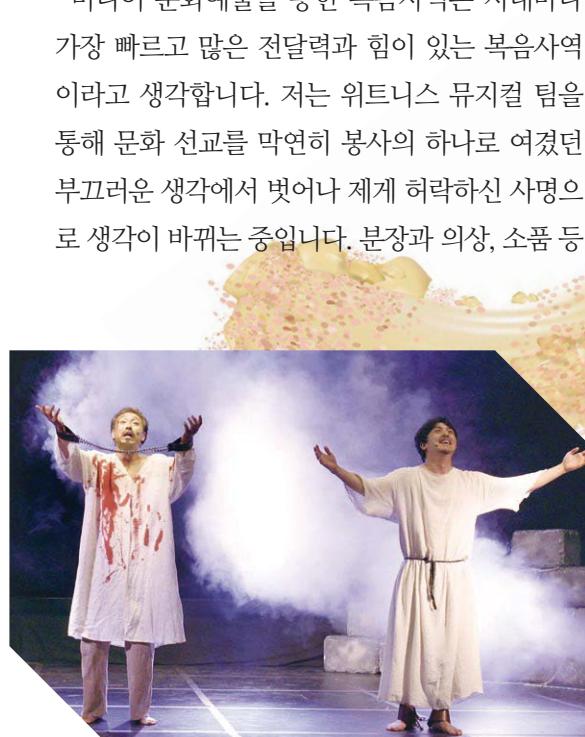
상이 편집되어 나온 것을 보고서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 뒤 스태프의 자리

저의 자리는 스태프입니다. 무대 뒤에는 각자 일을 맡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배우들은 잘 보이는 무대 위에서 활약하지만, 스태프들은 무대 뒤에서 배우들을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 막 뒤에서 모습이 보일 수 있으므로 언제나 검은 옷만 입는 사람들입니다.

막 뒤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대 뒤는 깜깜해서 하나님의 빛이 더 잘 보인다고 감사해하며 그 시간을 긴장과 기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스태프 일을 사랑하고 몸이 다할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문화예술을 통한 복음사역은 시대마다 가장 빠르고 많은 전달력과 힘이 있는 복음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트니스 뮤지컬 팀을 통해 문화 선교를 막연히 봉사의 하나로 여겼던 부끄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제게 허락하신 사명으로 생각이 바뀌는 중입니다. 분장과 의상, 소품 등





각 분야의 스태프들과 함께 공부하며 늘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뮤지컬 스태프 팀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세상에서 분장사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위트니스 팀을 통해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선교대회에서 상영한 〈바울〉 영상공연은 겨우 40분 남짓이지만, 그 영상공연을 만들기 위해 보낸 숱한 시간은 저와 우리 공연 팀 모두를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코로나19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방역 단계가 높아지고 대면연습을 자주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더 준비되지 못했던 아쉬움과 더 많이 소통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위트니스 팀 안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을 통해 다시 복음을 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모자라고 부끄럽고 모난 모습들, 제가 짚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전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멈추지 않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만날**



이선경
집사
용인·화성교구, 문화선교부
뮤지컬 〈바울〉 분장디렉터

2030 탈종교화의 원인과 대책

지난 호에 이어서 〈2030 탈종교화 원인과 대책〉 주제에 대해서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을 거쳐 의견을 모아 예배도 막히고 선교도 막힌 현 상황을 극복하는 작은 모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호는 시대적 흐름과 원인 중심이며 다음 호에 대책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의견의 순서는 없고 토론을 온라인이 아닌 지상중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 등 세금내느라 힘들어 하는 가장들, 정규직 못되어 어려운 후배들 보며 그리고 코로나백신 후유증도 나타나 사회 전체가 침체되어 있는데 최근 드러난 부동산 폭등, 부동산 비리는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가 더 필요한 시기는 분명하지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회자



양지청 장로
홍보출판부장

토론자



제성호 장로
충장대교수 / 충신교회



안창호 장로
변호사 / 분당 임마누엘교회



이영종 기자
중앙일보 부국장



최재선 목사
청년부 지도목사



정천우 장로
교육부장



박일환 장로
대학부장



차영수 집사
편집위원장



나광호 청년편집위원



이현지 청년편집위원



양지청 장로 이런 주제가 사실 매우 중요하고 단기 과제이기도 하지만 중장기 과제로 논리를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종교화를 탈피해간다는 것인데, 학술적으로는 종교가 소멸되어가는 계몽주의 사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여러 분야가 종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데서 출발합니다.

제성호 장로님, 안창호 장로님 순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성호 장로 탈종교화의 경향은 아마도 이 땅의 젊은이들 사이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은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에게 편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동성애는 죄니까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라는 절대적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성경적 진리가 2030의 많은 젊은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판단은 상대적이다”라는 명제 역시 절대적인 것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볼 때 ‘절대 진리’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 2030세대는 신이 없다,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처럼 불의와 악이 만연할 리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그들은 세상을 불공정하게 내버려두는 신, 골치 아픈 영혼 구원의 문제엔 관심이 없고 편하고 즐거운 것만이 최고인 겁니다. 당장의 현세적 욕망 충족이 더욱 중요한 거죠. 이런 세속적·유물론적 사고가 탈종교화의 근본원인이라고 봅니다.

안창호 장로 저는 청년층의 탈 종교화와 관련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 인권 주장의 핵심에는 좌파 사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가정과 교회, 국가가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먼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국가를 전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동성애를 전면에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동성애로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 모든 과실을 임의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택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물질적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자유를 말살합니다. 모택동, 스탈린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북한도 동일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동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양지청 장로 안창호 장로님께서 역사적 흐름까지 이야기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자가 동성애 옹호자, 지지자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찾아보니, 종교가 있는 인구와 종교가 없는 인구(비종교인구)를 단순비교 할 때 무종교비율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비율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2015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탈교회 현상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상품을 고르듯 자신



의 구미에 맞는 예배와 설교와 영적, 문화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교회를 선택하여 소비한다고 분석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인구 규모는 동일
한데 이들이 한 곳에 몰리면 다른 곳이 줄어든다
는 것이지요.

이영종 기자 우리 교회가, 더 넓혀본다면 종교가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
년세대들의 경우 기성세대가 겪지 못했던 취업
과 결혼, 출산·육아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정
부나 사회제도 등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아픔을 위무해주고 기
운을 북돋아 줄 메시지와 정신적 에너지를 교회
와 종교가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들의 눈높이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길을 끊거나 새로운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풍요로움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계층화와 분열을 심화시켰고
결국 종교와 언론, 사회적·법적 제도와 규범마저
무시되고 비판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 사
회가 본격적인 혼란과 갈등, 파벌화의 길에 접어
든 건 아마도 사회갈등의 조정과 화해 목소리를
내주시던 원로 목사님이나 추기경, 큰스님 등 종
교적 어르신들의 권위마저 무너트리고 정파적 이
해관계나 이익에 따라 비난을 가하면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라도 젊은 세대들의
탈종교화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르네상스를 준비할 필요
가 있습니다.

제성호 장로 탈종교화의 바람은 교회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위 ‘가나안 교회(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한 풍자적 용어)’의 증가가 대
표적인 예죠. 이런 현상은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
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교회’를 외치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만 떠나는 것
이 아니라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배는 경건을 내포로 하는데, ‘나홀로 집에
서’ 예배드릴 경우 마음과 뜻을 다하는 진정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다가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
동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
로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나
안 교인들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으로 추측됩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왕따’,
'끼리끼리' 혹은 ‘편가르기’ 풍조가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나안 교인들을 방관
내지 비판만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양지청 장로 종교개혁주일을 맞으면서 생각
해봅니다. 종교개혁자인 개신교 그리스도인
(Protestant)은 그 이름 안에 이미 저항(protest)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 돌아가면,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 즉
가톨릭 교회조직과 교황에게 저항(protest)한다는
의미가 컸겠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사회의 모순과
부정의에도 소리를 낸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저항 정신이 탈종교화에 맞서 작용할 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젊은 층을 접하시는 청년부 최재선 목사님, 교육부장 정천우 장로님, 대학부장 박일환 장로님과 편집위원장 차영수 집사, <만남> 청년편집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나광호, 이현지 성도도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최재선 목사 2030세대의 탈종교화에 대한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 각종의 전문가 분들께서 보다 적절하게 다루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는 무엇보다 ‘내부적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물론, 기존의 기독청년들까지도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의 탈종교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 ‘복음의 부재’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통계들은 오랫동안 청년들의 기독교적 신앙이 단지 전통, 윤리, 도덕 그리고 문화적 함양 수준 정도에 방치되어 머물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살아 있는 진짜 복음’입니다. 이론이나 교리나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닌,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 할 수 있는 복음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을 살아간다면, 어려운 외부 환경들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욱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가정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합

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이 이 일에 매진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정천우 장로 구한말 대한제국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전체 인구의 1%에 지나지 않던 당시 기독교인들의 산술적 역량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 서명자 33인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6·25 전쟁 후 펫절한 가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 치던 한국인들은 기독교에서 희망을 보았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당시 염려했던 것은 외적 성장에 치우쳐 내적 치유 능력을 상실한다면 세인들은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최목사님 말씀처럼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기독교의 쇠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인은 인구대비 2014년 21%에서 2021년 17%로 떨어졌고, 20대와 30대 종교인 비율도 2014년 각각 31%와 38%에서 2021년 22%와 30%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무종교인이 60%에 이른 상황에서 개신교에 대한 그들의 호감도가 6%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사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박일환 장로 얼마 전, 크리스천 동료 교수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가나안 교인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글을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며 감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던 경험들은 이제 과거의 기억에 묻히고,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는 더 이상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매력 없는 것이 되었고, 인문학 독서모임에서 나누는 기쁨

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는 요지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종교 생활에서도 뉴노멀의 변화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삶의 품위를 높여주는 교양으로서, 사회적 신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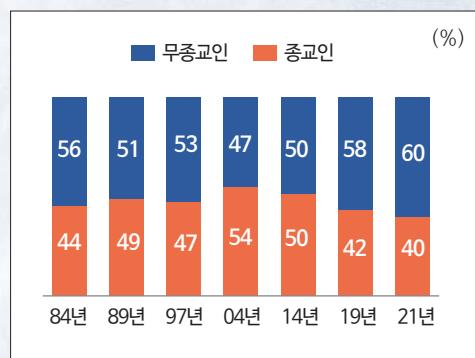
나타내 보이는 액세서리로서의 종교생활의 가치는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가치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종교인의 삶을 포기할 것인가 선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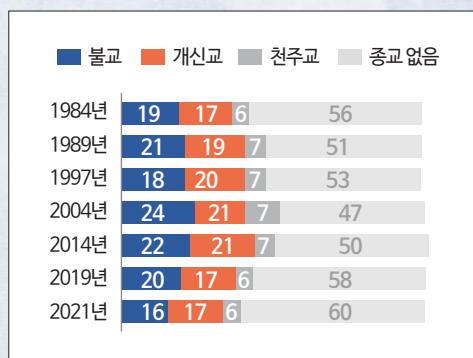
한국 사회 탈종교화 심화

-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우리 국민 가운데 종교인구 비율은 2004년 54%까지 높아졌다가 그 후로는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 40%로 줄어든 반면, 무종교라고 답한 비율은 60%에 달해 2014년 이후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종교인구의 감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04년에서 2014년까지 10년 사이 종교인구가 54%에서 50%로 4%p 줄었는데 반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 사이에는 50%에서 40%로 10%p까지 줄어들었다.
- 2014년 대비 2021년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탈종교 현상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난다.
- 40대 이하 젊은 세대의 종교인구 비율이 30% 안팎까지 떨어져 향후 종교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종교인 비율 변화(1984~2021)



종교 분포 변화(1984~2021)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복음에 빛진 자로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가나안 교인이 되어가는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진실 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에서 실패한다면 다음 세대에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변으로 한없이 밀려 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차영수 집사 일제 강점기, 삼일절 독립운동 등에서 보여주었던 국가나 민족에 크나큰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기독교는 늘 의연히 일어나서 사회를 선도하고 든든한 베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기독교의 역할이 위축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는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익을 받아 남은 자가 된 우리 모두가 지금의 이 상황을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교회와 성도 특히 다음 세대를 정성을 다해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기독교가 회복하고, 교회 뜰과 광장에 성도들이 빽빽이 가득한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나광호 청년편집위원 1984년 이래 50% 안팎을 오가던 비종교인이 올해 60%로 늘어난 것에 대해 우선 지적할 것은, 종교에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종교인 중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중이 1997년 26%에

서 올해 54%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나 일명 “나신교”(세상에 믿을 건 나 자신 뿐) 등 다른 응답을 합친 것보다 커졌습니다. 특히 20대(78%)와 30대(70%)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이같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지닌 청년층의 비중이 장년층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교 및 천주교와도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인 생활에서 종교의 중요도는 같은 기간 52%에서 38%로 축소되었지만, 이 부분에서도 개신교는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 신도들 자체의 문제보다, 비종교인들이 개신교를 너무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불교의 3분의 1, 천주교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도에 큰 어려움을 불러올 요소지요.

이현지 청년편집위원 10월 6일,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2022년을 대표할 단어로 ‘나노사회(Nano Society)’를 꼽았습니다. 개인은 더 미세하게 쪼개지고, 사람들의 취향과 선택은 더욱 세분화되며,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시대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시대적 흐름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편승하는 청년들. 이들은 각자 자신이 찾은 가치관과 목표를 따라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신앙의 길에 들어설 희망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먼저 현시대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방점을 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나노사회 이면에는 ‘고독 사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2018년 2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0%가 “고독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대면 인간관계를 맷는 사회적 분위기가 원인이었습니다. 같은 해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사회적 전염병으로 정의하고,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ry for Loneliness)을 임명해 전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올해 초 총리관저 내각관방에 ‘고립·고독 대책 실’이 출범했습니다. 사회적 연결고리의 부재와 방임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시대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적응하는 청년들의 경우 이러한 고독과 아픔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양지청 장로 ‘탈종교화’ ‘탈교회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석과 처방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 국민의 70%에 이르면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사회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후유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많고, 지난 2년 간의 ‘거리두기’ ‘비대면’ 체제가 남긴 여운이 작지 않습니다. 대면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젊은 층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창호 장로 교회에서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교회가 한 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3.1 운동은 기독교가 교회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교회가 3.1운동을 제대로 기록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교회 핵심과 교회체계를 바라는 그룹이 존재합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기록하고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까지 포괄하여 추진하여 책자로 하면 쉽게 만들어 배포하면 좋겠습니다.

제성호 장로 탈종교화의 광풍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예언자 내지 선지자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혼종하는 악과 불의와 불공정 등은 모두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회가 듣기 좋은 설교만 해선 안 됩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메시지를 정교하게 잘 구성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맨투맨 전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와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는 요즈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의 온전한 삶을 떠받치는 지주이자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구원과 참 행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혼들에게 이 같은 복음의 진리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터인 한국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와 기독인들을 향한 주님의 요청이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종기자 우리 교회는 통일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신적 행로를 결정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명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세대들이 교회의 유타리 안에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가정과 사회생활의 지혜와 힘을 얻어 가는 시간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광호 청년편집위원 개신교가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개별 교회 뿐 아니라 교계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된 부정부패 해소 뿐만 아니라 ‘원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도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성호 장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국 교회가 탈종교의 광풍을 극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선 2030세대와의 관계에서 보다 나은 ‘소통’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로부터 상처 받은 영혼들을 보듬어주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나오한 젊은이들,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소위 청년 루저(loser)들을 찾아내 상담하고 관리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이 갖는 의미, 주님과의 동행이 가져오는 축복, 사명 발견의 중요성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소통의 방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 일찍부터 남을 괴롭히는 영적·정신적 가해는

매우 큰 죄악이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품성과 덕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가나안 교인을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 누가 교회를 떠날까요.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유익한 신학적 강의(신의 존재, 인간존재의 본질, 죄와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를 염선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전파에만 관심을 가져선 안 됩니다. 이런 일에 돈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사회봉사요 선교 차원에서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한국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 속에서 ‘책임있는 공동체적 역할’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지청 장로 크리스찬들이 주예수를 믿고 목회자나 장로님이 주시는게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Salvation)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야 합니다.

사회적응도 잘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

(다음 호에는 시대적 흐름, 원인 이외에 대책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찾아서

– 갑바도기아·이고니온·다소



자신을 복음의 빛진 자로 여겼던 사도 바울.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태양이 솟는 곳’이라는 뜻의 아나톨리아(Anatolia) 고원지대 험한 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거친 파도를 헤쳐 갑니다. 갑옥에 갇히는 수난 속에서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간 바울은 기원후 67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도시들은 바울의 행적과 더불어 복음의 확장 역사와 초대교회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과 종교개혁 도시 탐구」 시리즈 3편에서는 터키의 지하동굴 교회로 유명한 갑바도기아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매번 방문했던 이고니온, 바울의 고향 다소를 중심으로 그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편집부



'아름다운 말들의 땅'이란 뜻을 지닌 갑바도기아 전경

| 사진 터키 관광청

갑바도기아(Cappadocia)

갑바도기아는 '아름다운 말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위치에,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갑바도기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강림 때 사도들로부터 갑바도기아 방언으로 말씀을 듣는 장면이 2장 9~11절에 나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갑바도기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직접 서신을 보낼 정도로 초대교회 역사에서 꽤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지형적으로는 약 일천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와 용암이 해발 약 900m 높이로 쌓이고 굳어져 응회암과 용암층의 붉은색, 흰색, 주황색의 여러 겹의 지층으로 이루어진 아나톨리아고원 지역입니다. 화산폭발 때 분

출된 용암과 화산재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응회암 지대의 사암층이 세월이 흐르면서 겨울에는 얼고 여름에는 녹으면서 바람과 물의 침식 작용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기암괴석들로 장관을 이룹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피하고자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에 인위적으로 지하 동굴을 추가로 파서 거대한 지하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군대의 습격 소식이 전해지면 6개월 동안 먹을 음식을 지하에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빛을 보지 못하고 견뎌낸 시간이 길다 보니 꼽추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팝박을 피해 어둠의 동굴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약 39개의 지하 도시를 서로 연결하여, 한 곳이 점령당하면 지하의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갑바도기야의 바위들

| 사진 터키 관광청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들었으며, 900m 높이의 고원 지대의 춥고 긴 겨울을 지냈습니다. 한때는 1,000여 개의 지하교회에 200만 명이 살았다고도 전해졌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지하 도시들이 붕괴했습니다. 현재는 데린ку유(Derinkuyu), 괴레메(Göreme), 카이마클리(Kaymakli) 세 지역만이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깊은 지하에 만들어진 곳으로 알려진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데린ку유는 지하 120m 깊이에 18개 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2만 명의 성도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괴레메 수도원은 갑바도기야 지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이한 모양을 지닌 뾰족한 바위들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방과 부엌, 창고들로 구성된 꽤 넓은 동굴 교회가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했던 수도사들이 바위 내부에 회벽을 바른 후, 예수님의 생애, 최후의 만찬, 십자가 고난, 부활 등을 그려서 군현 프레스코 벽화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6세기쯤 이슬람 왕국의 박해가 시작되자 또다시 이곳으로 피신하여 신앙을 지켰던 역사의 아픈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갑바도기야 동굴마을

| 사진 터키 관광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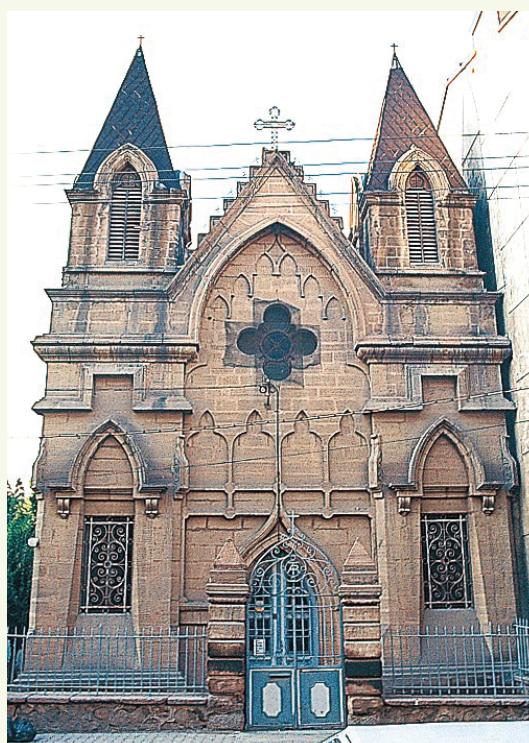
이고니온(Iconium): 바울 전도 여행의 핵심 도시

‘양의 가슴’이란 뜻을 지닌 이고니온은 터키의 수도 앙카라와 지중해 연안의 중간에 있는 해발 1,000m의 고원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코냑(Konya)로 불리고 있으며, 인구 약 230만 명으로 터키에서 7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다소로 향하는 길목으로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던 이고니온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바울은 기원후 약 47~48년 1차 전도여행 중에 바나바와 더불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고(사도행전 14:1~6), 50년경 2차 전도여행 중에는 실라와 더불어 이고니온을 방문합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 장면에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고니온(지금의 코냑)에 있는 아야 엘레나 교회 내부
| 사진 터키 관광청



이고니온 중심에 있는 바울기념교회

| 사진 김한기 기자

니’(사도행전 16:2)라는 구절로 미루어 보면 디모데가 이고니온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추측되며, 3차 전도여행에도 디모데와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이고니온은 앤디옥교회로 유명한 수리아의 앤디옥이 아닌 터키 비시디아의 앤디옥과 루스드라, 더베와 더불어 로마제국 갈라디아 속주(屬州)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로 친숙한 갈라디아(Galatia)라는 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쟁기』에 켈트족(Celts=Galli)을 뜻한다고 나옵니다.

300년 동안 터키의 고대왕국 셀주크 투르크의 수도이기도 했던 이고니온은 13세기 중엽 몽골족의 침입으로 유적이 철저히 파괴되어 지금은 바

울교회라고 불리는 테클라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우연히 바울의 설교를 들은 테클라는 약혼한 남자와 파혼하고 바울을 따라 전도여행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고니온 총독은 그녀가 팬한 소란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화형에 처하기로 한 후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으나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후 바울과 함

께 비시디아 앤디옥으로 가고, 그곳에서 그녀에게 반한 어떤 귀족의 청혼을 받게 되지만 거절합니다. 화가 난 귀족은 그녀를 사자 우리에 집어넣었지만, 이번에도 사자가 그녀를 건드리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테클라를 기념하여 100여 년 전에 세운 교회가 테클라교회입니다.

다소(Tarsus): 사도 바울의 고향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인류 역사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에 의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고향 땅을 밟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자신이 당시 로마제국의 속주 길리기아의 수도로서 인구 50만 명의 큰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26절을 보면 바울은 기원후 34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했으나, 바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바나바가 46년에 찾아와 앤디옥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것을 권유할 때까지 10년 이상을 고향인 다소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9~41절에서 2차 전도여행 중에 마가의 동행 여부를 두고, 바나바와 헤어져 실라와 더불어 다소를 거쳐 전도 여행지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다소는 ‘폭풍의 신’이라는 뜻의 타르훈츠(Tarhunz)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지형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를 지나 터키의 지중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약 20km 들어간 곳에 있는 길리기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길리기아 지역은 곡창지대로서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였던 마르쿠스 키케로가 총독을 지내기도 한 곳입니다. 다소는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했고 이곳을 통해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으며 많은 철



사도 바울의 생가와 우물 터

| 사진 김한기 기자

학자가 배출되기도 하여 소위 ‘소아시아의 아덴(아테네)’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도심의 중심에는 타르수스 산맥에서 눈이 녹아내려 124km 길이의 강이 된 타르수스 강(시드너스 강이라고도 불림)이 지중해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고대 사료에 따르면 이 강에서 42살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로마 장군과 28살의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이 화려한 배를 타고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을 위해 현지의 물자지원이 필요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가 죽은 후 로마제국의 실력자와 친분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모가 이곳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았다고 전해지는데, 바울이 말하는 천막은 유목민이 사용하는 천막이 아니라 운동 경기 또는 축제 기간에 사용하는 공간이거나 군용 막사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천막 하나를 만드는데 70~80여 마리의 염소 가죽을 사용하여 2~3개월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공동작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러

한 천막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도시의 귀족 또는 군대 지휘관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소의 주요 유적지로는 사도 바울의 고향 집 우물과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가 집터 가운데에 있는 우물은 도르래를 움직여 힘 석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립니다. 우물의 깊이는 약 38m로 지금도 당장 물을 길어 우물물을 맛 볼 수 있으며, 뜰에는 집터 근처에서 발굴된 돌 기둥과 비석이 전시되어 바울이 살던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1102년에 지어진 바울 기념교회는 현존하는 바울교회 중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부 천장에는 예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려진 프레스코 그림이 있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만남**

(다음 호에는 ‘터키 에베소’ 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종교개혁이야기



종교개혁을 이끈 신앙의 거인들. 왼쪽부터 얀 후스, 마르틴 루터, 울리히 츠빙글리, 장 칼뱅

종교개혁의 중요성

1517년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기독교 세계만을 뒤바꾼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와 권력의 지형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세인들의 사고체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17세기 이후 유럽의 팽창이 시작되면서 세계의 역사 자체가 바

뀌는데, 종교개혁은 이러한 세계사의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뒤바꾸어놓은 셈이지요.

종교개혁은 개신교를 세울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중세교회의 잘못을 고치고 개혁하기 위



박지운 목사
고양·파주교구
전도부

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정치권력과의 유착, 성직자들의 타락, 즉 부의 축적과 문란한 사생활, 성직매매, 미신적인 종교 행위, 부자들의 사치와 향락, 가난한 자들의 비극적인 삶 등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신학만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사제주의〉입니다. 사제(司祭)란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 ‘제사를 맡은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사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 일을 맡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으니 사제도 필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면서 제사장제도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이렇게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되면서 교회는 예수께서 의도하신 교회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 그룹은 차츰 일반 성도보다 ‘거룩한 자’라 인식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듯이 여겨졌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회귀한 것이지요.

이로 인해 나타난 심각한 잘못 가운데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각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성모를 통해, 사제를 통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지요.

사제주의 회귀로 인해 <성찬>도 오해되었습니다. 원래 성찬은 예수님이 행하신 유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성찬을 제사 개념으로 이해하여 성찬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 행위로 변질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사제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교황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대주교, 주교, 사제, 부사제 등 교회가 거대한 위계 조직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종교조직을 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을 하셨는데 생명력 있는 운동이 다시 조직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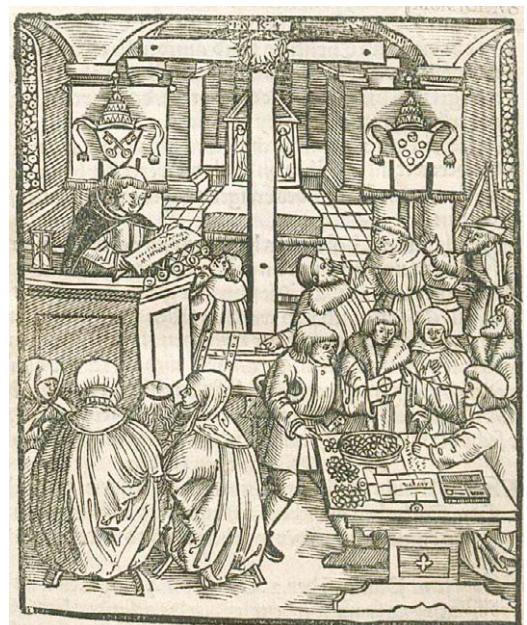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 종교개혁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사제주의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만인제사장설> 혹은 <만인사제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영국국교회와 몇몇 루터교에는 남아 있지만, 대부분 종교개혁자는 사제라는 말을 없앴습니다. 목사(牧師), 목회자는 사제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목자이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의 차이입니다. 목자는 양 떼를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특별히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구별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 면죄부(면벌부)

이러한 교회의 타락과 신학적 오류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들고일어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사제들은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재정 모금을 구실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돈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통용된 까닭은 그 시대 백성들이 무지몽매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신학화된 것은 <보상개념> 때문입니다.

면죄부는 현세나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을 면해



중세 교회 안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모습

주는 증서입니다. 현대의 가톨릭에도 대사(大赦)라는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대사’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따른 벌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톨릭은 대사부를 돈으로 사고팔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으며, 고해성사 할 때 사제가 주는 보속(기도, 선행 등)을 통해 죄에 대한 보상이나 속죄를 합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완전한 속죄를 하지 못하여, 죄에 따른 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참회하고 속죄하며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다 마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라도 정화의 과정[연옥]을 거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벌을 사면해 주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가톨릭은 죄와 벌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 치러야 할 벌은 남아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을 남아 있는 벌, 잠벌이라고 하는데 현세나 연옥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잠벌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공로를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벌을 다 담당하셨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벌이 있다는 주장이 가당합니까?

• 공로에 의한 칭의사상

가톨릭은 복음과 함께 인간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도 거부했습니다. 그 어떤 공로로도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질책한 이유, 바울 역시 지나칠 정도로 저항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선구자

이러한 잘못된 신학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개혁이 폭발된 것은 맞지만, 그 이전부터 개혁에 대한 작은 불꽃들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에 반기를 들고 개혁을 부르짖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으로서 가톨릭의 칙령과 잘못된 교리들에 대하여 항의하고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루터 이전에도 타락한 가톨릭에 대해 저항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습니다. 먼저 개혁의 불꽃을 피우다 순교한 개혁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

존 위클리프는 영국의 종교개혁가입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백년전쟁이 한창이었는데, 당시 프랑스 아비뇽에 있던 교황청이 영국에서 세금을 거두어 프랑스 왕가를 지원하는 등 교황청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진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위클리프는 교황청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교회와 교황의 절대 권위를 부정했고, 성직자든 평신도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에 마틴 루터가 꽂을 피웠습니다. 그 어떤 성례보다 설교가 중요하다고 설파한 위클리프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 조직체계와 미사 행위들은 말씀으로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1320~1384)

위클리프의 업적은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하고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혁명적이지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사에서 라틴어 성경을 신부가 낭독하면 일반 백성들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연옥이든 면죄부든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급진적인 주장을 하던 위클리프와 그의 추종자는 정죄당하고 무섭게 박해받았습니다. 위클리프가 죽고 30년이 지난 1415년, 교황청은 콘스탄스공의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선언한 후 부관 참시, 즉 그의 시신을 파내 화형에 처하고 그 재를 강에 뿌렸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난 그의 개혁을 따르는 제자들은 1백여 년 후 영국의 개혁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얀 후스(Jan Hus 1372~1415)

얀 후스는 위클리프보다 한 세대 이후 사람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신학교수였던 그는 위클리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는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성경이 모든 권위의 척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체코의 후스파교회 마크는 십자가를 잔이 감싸고 있습니다. 교회 첨탑에 십자가와 함께 성배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연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교인들에게 이종배찬 금지, 즉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았습니다. 1215년 라테란공의회 결정이었습니다. 개혁주의자인 후스가 보기 이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종배찬 금지를 악하고 미친 짓이라고 혹평합니다. 실제로 얀 후스 순교 550년이 지난 1962년이 되어서야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평신도에게 잔을 주기로 했습니다.

얀 후스는 평신도에게 잔을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다 교황청으로부터 파면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단으로 선고받게 됩니다. 아니, 성찬식이 그렇게도 중요한 예식인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신성한 예식인데, 왜 잔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뒤에서 살피겠지만, 종교 개혁의 가장 뜨거운 논쟁점이었던 성만찬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화체설, 즉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간혹 개신교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의 이해는 이와 다릅니다. 뒤에서 살피겠습니다.

얀 후스는 1415년 콘스탄스 공의회 결정으로 7월 6일 화형당합니다. 공의회가 출두를 요청했을



체코 프라하에 서있는 종교개혁의 선구자
얀 후스(1369~1415) 동상

때 탈출하지 않고… 얀 후스는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면 이단에게 규정된 형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공의회에 출두합니다. 화형당하면서 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리의 거위(Hus는 거위-goose를 뜻하는 체코어와 발음이 같습니다)를 불태우지만, 일백 년 후에는 백조 한 마리가 등장할 것이다.” 여기서 백조(swan)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터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무르익다가 루터가 등장하여 유럽 전체에 폭발적으로 개혁이 시작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회자되는 루터와 칼뱅, 그리고 콤비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남**

(12월호에 종교개혁 특강 ②가 이어집니다)

▶ 종교개혁특강 강의보기



2021 제자양육훈련부 <온라인교육 가을특강> 안내

- ▶ 영락교회 홈페이지에서 ‘양육/훈련’ → ‘양육-제자양육훈련’ → ‘특강 바로가기’ 클릭
- ▶ 가을특강 사이트 : http://www.youngnak.net/dtd_seminar/
- ▶ 교재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PDF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박지운 목사	최재선 목사	황재영 목사
종교개혁 특강	기독교 교리로 바라본 이단	영혼의 양식 ‘큐티학교’



그냥 더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화선



‘이화하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이화선 작가는 말씀묵상 그림일기
‘나에게 꼭 불어있으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등을 출간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미래예측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섰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슈밥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언한 지 2개월 후 구글의 알파고가 세계 바둑계를 10여 년간 평정했던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4승 1패로 이기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촉발되었습니다.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가득 찬 세상이 곧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1.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이해

제4차 산업혁명의 3대 선도기술은 물리학·디지털·생물학 기술로 분류됩니다. 먼저 물리학 기술에는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융합,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는 사물인터넷(IoT), 금융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플랫폼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생물학 기술에



이명호 은퇴장로
안양·수원교구
연세대 명예교수

는 유전학, 합성생물학, 유전공학, 바이오프린팅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상호 융합하며 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이들 3대 선도기술 중 핵심요소기술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로봇공학(Robotics), 3D 인쇄(3D Printing),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사물인터넷(IoT)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및 활용하는 초연결 인터넷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물이 가진 특성을 지능화하고, 인간의 최소한 개입을 통해 자동화하며, 다양한 연결을 통한 정보 융합으로 인간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선 센서·상황인지 기술, 통신·네트워크 기술, 칩 디바이스 기술, 경량 임베디드 네트워크 기술, 자율적·지능형 플랫폼 기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사용자 중심의 응용 서비스 기술,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만보기는 단순히 걸음 수를 쟤는 용도였지만, 의료용 IoT 센서를 보행자에게 부착시킨 후 인터넷에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을 보행자의 스마트폰에 저장시키면 보행 중의 건강상태를 측정, 판단, 예측 가능한 기능을 갖는 만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월 수준의 만보기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가치의 만보기로 재탄생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오랜 침체기를 거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빅데이터가 뒷받침되어 심화학습이 구현되는 극적인 돌파구가 열

리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기술이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전자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인공지능 적용 분야가 의료기술 향상, 유전자 분석, 신약개발, 금융거래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IBM은 인공지능 '왓슨'을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데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왓슨은 암 환자의 데이터와 각종 의료 데이터를 동원해 암 발견과 최적의 치료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의료기기들이 인공지능 '왓슨'과 같은 지능형 의료 플랫폼에 연결되면 단순한 건강 정보의 수집이나 모니터링을 넘어서 질병의 진단과 처방에 이르는 의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및 산업기술, 스포츠 등 모든 영역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합니다.

이같이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요. 하지만 빅데이터 기술이 지닌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보안 측면에 대한 대책이 아울러 필요합니다.

로봇공학(Robotics)

로봇공학은 로봇에 관한 과학이자 기술학으로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공학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학문분야 간의 연구 영역입니다. 로봇공학에는 전자공학, 역학, 소프트웨어, 기계공학 등 관련 학문의 지식이 필요하며, 여러 유관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식의 도움을 받습니다.

현재 로봇 분야는 ‘다빈치’ 등 의료수술 로봇, 산업 로봇, 생활 로봇, 우주탐험 로봇, 구조 로봇 등 여러 종류로 발전하여, 소비자 및 산업 제품의 제조, 조립, 포장, 광업, 운송, 지구 및 우주 탐사, 수술, 무기, 실험실 연구, 안전 및 대량생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D 인쇄(3D Printing)

3D 프린팅은 연속적인 계층의 물질을 분사하면서 3D 물체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입니다. 3D 프린터는 기존 잉크젯 프린터에서 쓰이는 것과 유사한 적층 방식으로 입체물로 제작하는 장치를 말하며, 컴퓨터로 제어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고 다른 제조 기술보다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이유는, 기계 절삭 및 성형 등 기존의 생산 방식을 탈피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어떤 형태의 제품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 등의 의료분야

는 물론, 가정용품을 비롯해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 쓰이는 기계장치도 3D 프린터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반 컴퓨팅의 일종으로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클라우드’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네트워크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인터넷을 구름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된 인터넷 환경을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동영상이나 문서 같은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려면 컴퓨터에 저장된 워드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은 프로그램과 문서를 다른 곳에 저장해놓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문서를 다른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 따로 저장할 필요도 없으며 컴퓨터가 고장 나도 데이터가 손상될 염려가 없습니다.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예측

한국의 미래

한국경제는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국제적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에 민감하지만 많은 학자가 제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나라 는 이미 제3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경험한 바가 있지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컴퓨터와 함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므로 우리나라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상당히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도 시장의 기반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 미래는 밝은 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혁신적인 사고를 부단히 창출하는 사람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세계경제 포럼이 발간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급부상으로 향후 5년간 일자리 200만 개가 새로 생기지만 대신에 710만 개가 사라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은 분명하겠지요. 하지만 다수의 학자가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미리 파악하면 제4차 산업혁명에 뒤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자본보다 재능을 가진 인간이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저기술-저임금’ 직업과 ‘고기술-고임금’ 직업을 구분하는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는 혁신적인 사고를 부단히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기득권에 도전하며 중단 없는 혁신을 감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조력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포한 세계경제포럼은 미래 인재의 핵심 능력으로 도전정신, 문제해결력, 소통능력, 창의성, 적응력, 협력능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스펙’만 관리하는 취업 준비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창조력과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창조력은 갑자기 길러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섭’하는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넓고도 깊은 지식 습득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지식을 실천하는 일에 익숙해진다면 어떤 일자리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상상력을 동원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동료와 의견을 나누고 협력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남**

보성(保聖), 거룩함을 지켜가다

- 개교 114주년을 맞은 보성학원



보성여자중·고등학교는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1907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위대모(Whittemore, Norman C. 1870~1952), 노세영(Ross, Cyril 1868~1963), 샤록스(Sharrocks, Alfred M. 1863~?) 등 미국 기독교 북장로회 선교사와 양전백¹, 이성삼 등 선천의 교계 지도자들이 발기하여 창립된 보성은 1907년 10월 10일, 교명을 <보성여학교>라 칭하고 선천 읍 미동병원 부속 건물을 임시 교사로 개교했습니다.

다. 초대 교장으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최미례(Chase, Maria Louise 1869~1938) 여사가 취임했습니다.

보성여학교는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교육에도 굴하지 않고 성경수업과 예배를 수호해 왔습니다. 검박회(국산품 장려회)를 조직하여 일제 상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검박회는 이후 선천 여자기독청년회(YWCA)로 발전되었으며, 독립투쟁 만세운동과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1 보성여학교의 설립자 중 하나인 양전백 목사(1869~1933)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자로서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33인 민족 대표로 참여했으며, 나라와 민족에 헌신하며 일생을 마쳤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공산당의 탄압으로 보성여학교는 임시 폐교되었는데, 1950년 4월 서울에서 재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경직 목사님을 추진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선천에서부터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알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던 선천 보성여학교 졸업생 김성무², 오순애는 당시 베다니전도교회(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영락교회 초창기 여전도회 활동은 선천 보성여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이었습니다. 보성 재건 당시 영락교회 여전도회 회장 윤병주, 부회장 백운선, 서기 차윤신, 회계 정구한, 부회계 송낙결 등 대부분 임원이 선천 보성여학교 출신이었고 임원 명단에는 없지만, 이영철, 양애삼, 박경애, 고덕화 같은 졸업생이 영락교회 여전도회에서 활동했습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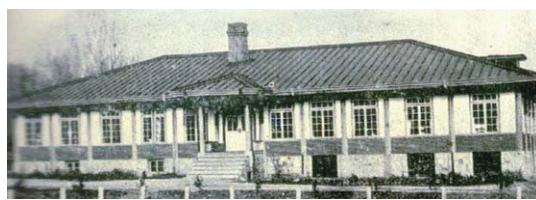
보성학원 재건 추진위원회의 노력으로 1950년에 영락교회에서 개교하여 수업 준비가 마무리될 즈음에 뜻밖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산 피난 학교를 경영하는 중에도 교사들과 학생들의 교육적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수복과 정부 환도에 따라 1953년 9월 1일부터 보성은 영락교회 부속 건물을 임시 교사로 개교했습니다. 당시 영락교회 시무장로였던 제2대



보성여학교
기독청년회 임원
(1933년)

교장 계병호는 영락교회 부속건물을 임시교사로 사용하는 것에 힘쓰는 등, 학교발전에 혼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54년 3월 20일 영락교회에서 보성여자중학교 제30회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듬해 1955년 4월 1일 보성은 해방촌(용산구 용산동 2가, 현 위치)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교기·교가·교표·교훈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특히 교훈은 거룩한 학교를 강조했던 초대 이사장 한경직 목사님의 뜻을 반들어 ‘진실·사랑·거룩’으로 정했습니다.



보성여학교 교사 (1910년대)

“우리 보성여자중·고등학교는 거룩한 학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모든 속된 것의 반대입니다.

2 선천 보성여학교 제2회 졸업생인 김성무(1891~1967)는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신의주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보성학원 재건 추진위원, 대한기독교 여성절제회 회장, 영락교회 여전도회 부회장, 여전도회연합회 총무, 영락유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3 보성여자중고등학교(편), 『보성백년사』(서울: 다락방, 2007), 182~183쪽.



1954년 보성여자중학교 졸업기념
(왼쪽부터 김성무, 오순애, 한경직, 계병호,
백영엽 외 이사진)

모든 부정한 것의 반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성여자중·고등학교는 모든 세속적 학교와는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보성인들은 세속을 쫓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⁴

—한경직 목사님의 훈화 중에서

보성학원은 올해 개교 1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보성(保聖), 즉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본교의 교육적 이념과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

나19의 강한 도전과 장애 앞에서도 보성(保聖)의 뜻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학생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자 애쓰며, 대면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선교의 걸림돌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기본에 충실한 신앙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덕목들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돋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신앙부흥회. 굿 뉴스(Good News)라는 주제로 신앙 안에서 하나 된 말씀 친치를 열었다



2021세례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딸들

4 『보성백년사』, 202쪽.



보성여고는 신앙부흥회 등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성장을 돋고 있다(2019년)



‘굿 뉴스 Good News(이사야 52:7)’라는 주제로 신앙부흥회를 개최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의 복음화 비율은 약 25~30% 정도 됩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세례식을 통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 세례식을 통해 복음화 비율이 50%로 상승했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움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보성의 가족들은 그 어떤 위협과 장애물도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학원선교 현장에 있는 사역자의 기쁨이며 간증입니다. 더욱 애써 기도함으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교직원들의 찬양과 기도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보성여자고등학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날**



최경민 목사
보성여자고등학교 교목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2000년 4월 19일,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동네에서 당시에 막 대중화되고 있었던 ‘한메일(hanmail)’에 접속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을 열었습니다. 웹 사이트의 첫 화면에서 초등학교 6학년 저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 손주를 돌봐주시기 위해 함께 계셨던 친할머니에게 뉴스 기사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개고 있던 뺨래를 털썩 내려놓으시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하셨습니다. “어마어마, 한경직 목사님이…? 언제 돌아가셨데?”

질문하시는 할머니의 이미엔 한 겹의 주름이 더 생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내 눈가가 눈물로 촉촉해진 할머니는 감정을 추스르시며 어린 제게 가르쳐 주시듯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정말 훌륭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주님….”

당시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수많은 성도님이 가지고 계실 간증을 우리 가족도 가지고 있었습

니다. 우리 가족은 6·25 전란 후 한경직 목사님께 많은 도움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하시며 한경직 목사님의 별세를 긴 시간 애도하셨습니다. 당시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한 가지의 사실은, 그로부터 20여 년 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배움과 감동으로 가득했던 4년간의 사역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영락교회에서의 사역은 감사와 벅찬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4년 동안 매년 다른 부서를 섬기며 힘 축적인 경험과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해에는 교육/준전임 전도사로 국제예배부(IWE)를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IWE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팬데믹 전에는 오후 예배와 성경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주 여러 나라에서 오신 다양한 성도 분들이 IWE 예배를 방문하셨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함께 복음을 나누는 일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부임 이듬해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후 예배부 소속으로 성찬팀과 영락기도대, 금요 찬양팀의 엔지니어를 맡았습니다. 성찬팀 소속 권사님들께서는 매달의 찬양예배 성찬식, 매해 두 번의 대 성찬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토요일마다 강대상에서 아름다운 꽃 장식을 정성스레 만드시는 섬김의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문이 열려있는 모든 시간에 단 1분도 빠지지 않고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150여 명의 영락 기도대 사역은 여전히 제게 큰 도전과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임 2년차 때는 선교부의 문화선교와 해외선교, 그리고 외국인 안내부의 주일 2~3부 예배 통역을 맡았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의 여파로 안타깝게도 해외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이 귀국하셨으며, 문화선교부의 공연은 사전 녹화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어렵고 위험한 환경 속에 두고 온 양들을 위해 서둘러 다시 출국하시려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큰 본보기가 되었고, 연습 때마다 온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에 임하는 문화 선교부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지으시는 기쁨의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상담부와 주일예배 설교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담부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 자원하여 그들의 고민과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상담부를 섬기며, 같은 해에 목사 암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역실에서 하는 동시통역과 원

고를 번역하는 번역 작업은 언어는 다르지만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기에 제게는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훈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4년간 다양한 부서와 보직, 그리고 교구에서 사역하면서 다시 한 번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며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락 공동체를 위해 2천 년 전 보혈의 값을 먼저 내셨고, 이제 저희는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영락의 끝에서 ‘만남’을 가지게 된 저와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가사를 매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만남**



이형진 목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상담부



동행하는 가족



일이 바쁜 남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 대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집에 모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멀어질 일 밖에 없겠다 싶었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때에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각자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으면 하는 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에 주보에서 영락수련원의 <가족 수

련> 광고를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수련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가족 수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리 엔테이션, 말씀 묵상, 말씀 쓰기, 짐 식사, 자연 묵상, 그룹 영성 지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이 한 말씀을 시간을 갖고 묵상하고, 나누며, 함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니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시간을 주셨을 때에는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 함께 앉아계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가 처음 가정을 이루었을 때부터, 아이들 양육의 기간, 그리고 지금까지 각 사람, 그리고 가족 전체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말씀 쓰기 시간은 함께 묵상한 말씀 중에 각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단어나 구절을 선택해 마음에 새기듯 캘리그라피 붓으로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글을 고르고 글자의 모양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면서 또 다른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딸 효은이는 “경외”라는 단어를 골라 한글과 “respect,” “fear,” “awe”라는 영어 단어로 쓰면서 그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하며 깊이 새겼고, 아들 준형이는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구절을 적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쓴 글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볼 수 있는 활동이어서 즐거웠습니다.

그 후 야외기도처까지 걸었던 숲길의 시간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가족이 숲 속을 걷고 있는 모습과,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 말없이 걸었으나 영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기억납니다. 같이 걸어주신 교역자님들의 모습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역자님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과 기도로 같이 걸어주시는 모습과 같다 생각되었습니다. 권혁일 목사님과 윤형배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룹 영성지도 시간에는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 가족들이 각자의 신앙적 고민을 나누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의 방향을 정돈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하게 되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함께 수련을 하며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니,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그 시간 목사님이 나눠주신 우리 가족에

대한 묵상과 조언도 가족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하루가 하나님과 가족 안에서 참 좋은 삶을 가진 날이라고 합니다. 딸은 평소 고민하던 하나님 앞의 거룩함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성경을 더욱 궁금해 하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수련원에서의 하루는 참 평안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는 가족, 하나님과 친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여러 가족이 함께 하는 수련이나,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은 성도들이 누리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영락수련원에서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박정윤 권사
중구·용산교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락경로원

하남시 안터로(풍산동)에 있는 영락경로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탕인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어르신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어르신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도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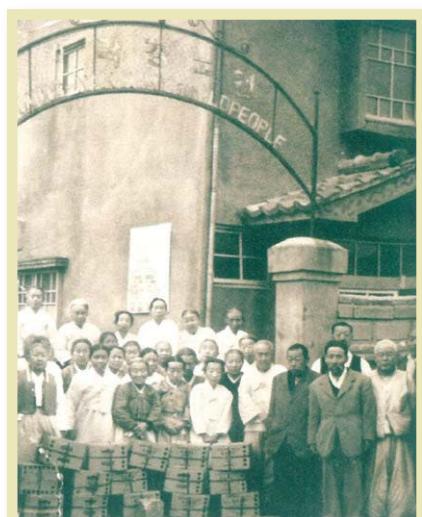
저희 영락경로원의 원훈은 성경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경건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며, 365일 24시간 교회를 개방하여 기도와 예배가 쉬지 않는 곳

입니다. 어르신들의 기도와 영락교회 많은 성도님의 기도로 저희 영락경로원은 현재 64명의 어들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락경로원은 1952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개원한 후 1965년 6월에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로 옮겨 소일거리로 닭을 키우고 바느질을 하는 등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셨습니다. 1986년 영락경로원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영락경로원 건물을 짓고 어르신들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8년이 지난 2014년, 3인 1실이었던 거주 공간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2인 1실로 리모델링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1986년 영락경로원 40주년 기념사업으로 경로원 건물을 신축했다



경로원 설립 초기 돈암동 원사 앞에서(1953년)



주방 리모델링 후



올해는 주방 리모델링과 주방 시설물 교체를 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배관, 전기, 환기 등 시설을 공사하여 배수로 확대, 오수 역류방지, 방염·방수 기능의 알루미늄 재질로 천장 시공, 환기팬 성능향상 등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1986년 이후 35년 만에 리모델링한 주방은 경기도 기능보강사업비 및 영락 사회복지재단 지원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후원 모금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 후원자들과 영락사회복지재단을 통한 영락교회 후원에 많은 분이 참여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셨고, 영락 사회복지재단 김종태 이사님을 통해 KMI 의학 연구소 후원이 연결되어 주방 시설물을 전면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고 쾌적한 조리시설에서 조리한 위생적이고 신선한 식자재의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방 리모델링과 관련한 공사 과정의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끄시고 필요한 부분을 부족 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했습니다. 영락경로원을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해주시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영락경로원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한경미 원장
영락경로원

시온찬양대 75년의 발자취

시온찬양대 대장 나선환 장로, 총무 송정석 안수집사



시온찬양대 창립70주년 기념음악회(2016년 11월 지휘 조형민)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3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시온찬양대는 우리 교회 창립 이듬해인 1946년에 조직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반으로 가른 38선 이북에서 거세진 공산주의 휩박으로 인해 남으로 온 기독교인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베다니교회를 세웠습니다.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줄곧 베다니찬양대로 불렸던 찬양대는 1967년 예배를 2부, 3부로 확대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시온'을 생각하시며 '시온찬양대'라고 새롭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시온찬양대는 우리나라 교회 찬양의 모델로 여겨집니다. 교회음악, 교회 합창과 솔로의 모범을 시온이 앞서 제시했습니다. 초대 지휘자는 영락교회 목사이셨고 후에 새문안교회 담임목사로 가신 강신명 목사이셨고,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학교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한영교 목사, 그 뒤를 이어 곽상수 장로, 최근 별세하신 박재훈 목사 그리고 윤학원 장로가 지휘자로 섬기셨으며, 현재는 조형민 집사가 2009년부터 여덟 번째 지휘자로 시온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고전 바ロック 시대부터 현대 곡까지, 시온찬양대는 시대를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주중 연습과 주일 9시 40분 경건회로 시작하는 주일 연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대원이 함께 찬양할 수 없지만, 매 주일 강승훈 지도목사의 인도로 ZOOM을 통해 온라인 경건회를 드리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찬양대장을 중심으로 많은 대원이 기도와 나눔으로 준비하며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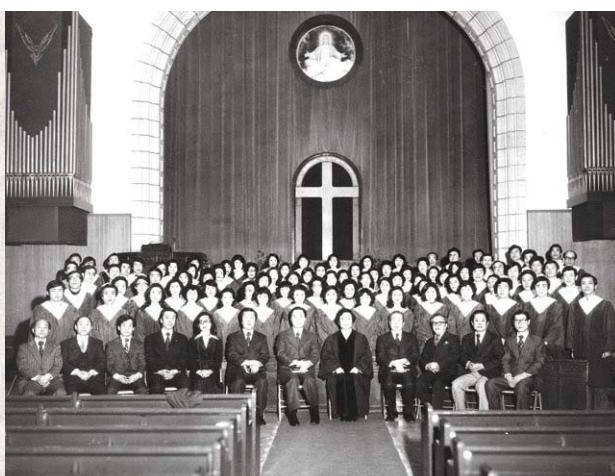
시온찬양대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한국

교회음악 연주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1955년 헨델의 <메시아> 전곡 연주회를 국내 초연한 데 이어, 1964년부터 해마다 여러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1970년 박재훈 작곡 <엘리아>를 연주했고 1976년부터 극동방송에서 개최하는 성가대합창제에 매번 참석하여 교회음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2016년 시온찬양대 70주년 기념 음악회는 정말로 감사와 기쁨의 연주였습니다. 국내 여러 도시 순회연주와 해외연주로 한국교회 합창 음악의 선구자적 역할과 소임을 담당했습니다. 1990년에는 미국 LA 월턴극장과 뉴욕의 카네기홀,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연주하며 한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해 준 나라들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2006년 극동방송 창사 50주년 기념으로 정명훈 지휘, 런던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 2009년 <ANGELUS & MAGNIFICAT> 크리스마스 공연도 기억에 남는 공연입니다. 솔리스트를 주축으로 한 토요음악회는 찬양대와 성

도님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시온찬양대가 지난 75년간 걸어온 발자취는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허락하신 역사입니다. 저희에게는 큰 감사의 시간입니다. 찬양대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수많은 선배님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특히 총무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섬기셨던 고 김선호 안수집사, 지금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한정현 장로 등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 초연을 비롯하여 한국 교회음악사에 길이 남을만한 도전을 감행하셨던 열정의 지휘자 박재훈 목사, 38년간 시온찬양대를 섬긴 윤학원 장로는 시온찬양대의 기반을 닦은 선배들입니다. 시온을 섬기며 대우합창단, 선명회합창단 등 교회 외부 활동을 통해 한국 교회음악을 한 단계 도약시킨 윤학원 장로는 1971년, 33세 젊은 나이에 찬양대 지휘를 맡았습니다.



1976년 시온찬양대 음악예배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시온찬양대 역대지휘자
1 강신명 목사(1946) 2 박재훈 목사(1952~59, 1964~72)
3 윤학원 장로(1973~2008) 4 조형민 집사(2009~현재)



1990년 한국 교회 찬양대 중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펼쳤다. (지회 윤학원)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윤 장로는 “전임 지휘자이신 박재훈 목사님께서는 찬양 연습 중 화가 날 때면 지휘봉을 꺾어버릴 정도로 카리스마가 강하셨지만, 새파랗게 젊은 저는 찬양대원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죠, 지휘자로 부임 후 찬양대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찬양곡을 시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라고 시온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 찬양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평생 시온찬양대 솔리스트로 섬긴 소프라노 광신형, 박순복 집사 등의 지도와 수고는 우리 찬양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렵지만, 시온찬양대는 해마다 겨울음악학교를 통해 파트간 친목을 도모하고, 찬양대원의 음악성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찬양곡 작곡가 특강, 분기별 신앙사경회 등 대원들의 믿음 성장을 돋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온찬양대는 참으로 아쉬운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1990년 북미 순회 연주 이후 30년 만에 준비한 해외연주 <독일 순회연주회>가 무산된 것이 그중 가장 큽니다. 독일 통일 3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의 통일을 염원하며 준비한 연주회는 베를린의 카이저 빌헬름 교회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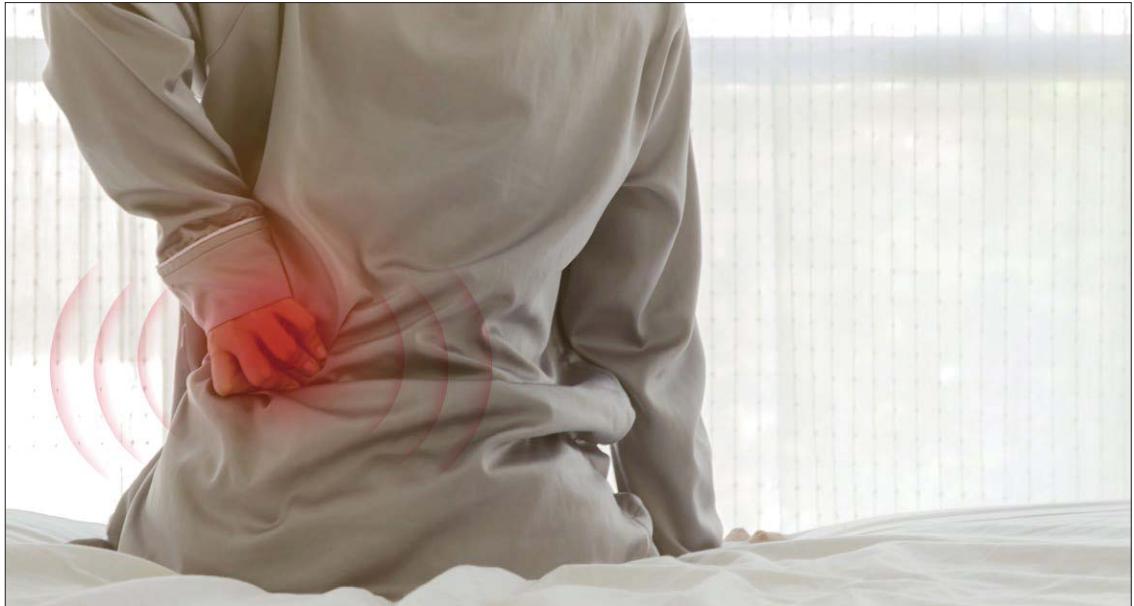
양하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온찬양대 지휘자인 조형민 집사는 더욱 개방적인 방향으로 찬양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어느 특정한 장소나 시대의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며, 이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개방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공부한 조형민 지휘자는 교회 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시온찬양대가 지금까지 커다란 음악적 유산을 쌓아온 것처럼 앞으로 양질의 다양한 음악을 교우들과 나누며 우리 모두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온찬양대 대장으로 섭기고 있는 나선환 장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온찬양대가 더욱 쓰임 받기 원합니다”라며 시온찬양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의 눈물과 기도로 이어온 시온 찬양대가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듣는 영락의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아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다음 호에는 ‘베다니찬양대’ 편이 이어집니다)

건강한 콩팥으로 살아가기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과 짧은 가을이 지나고 11년 만의 첫 10월 한파를 겪고 나니 곧 겨울입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신장 또는 콩팥이 하는 역할과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건 집사
강남교구
신장내과 전문의

콩팥은 우리 몸속 양쪽 옆구리 속에 들어있는 대략 10cm 정도 크기의 강낭콩 모양의 장기로 수백만 개의 작은 혈관덩어리와 이를 둘러싼 작은 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약성경에서는 번제를 올리는 짐승의 장기 중 하나로 몇 차례 등장합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잘 아시는 대로 소변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가 장에서 몸에 흡수된 후에 신체 여러 부위에서 사용하고 남는 수분과 염분은 소변을 통해 내보내게 되고 만일 식사를 못하여 탈수가 된 경우에는 소변으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몸의 수분과 염분량이 유지됩니다. 또한 몸에서 각종 신진대사를 하며 만들어진 노폐물, 즉 불필요한 찌꺼기를 배설해 줌으로써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되는 일종의



정수기 역할을 하고 혈액의 산성과 알칼리성을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그 밖에도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이나 빈혈이 생기지 않도록 피를 만드는 과정을 촉진하는 호르몬,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D를 활성화해주는 역할 등도 콩팥의 주요한 임무에 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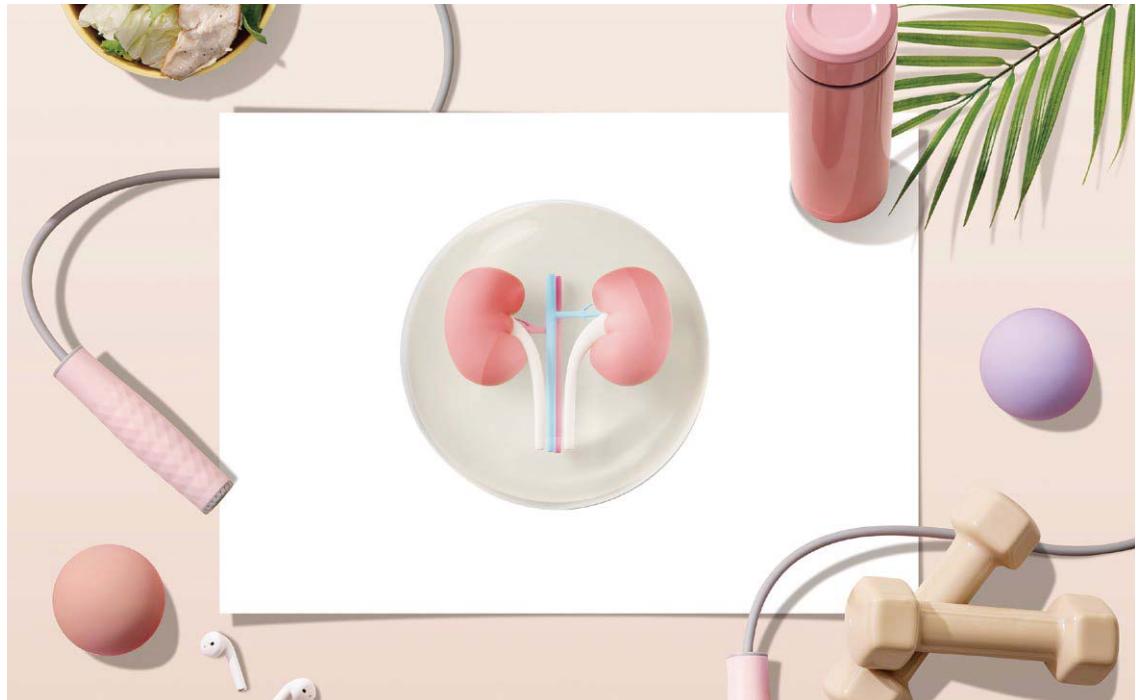
이렇게 중요한 장기여서인지 두 개 중 한 개만 정상적으로 활동해도 생명 유지에 지장 없도록 여유 있게 만들어져 있지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나 몇몇 질병에 의해 콩팥의 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소 원인의 대표적 질병은 당뇨병과 고혈압이며, 실제로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이나 이식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 이 두 질병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만성신장염이나 다낭신과 같은 유전병, 콩팥에 해로운 약물의 장기복용 등이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에 여유가 충분하므로 역으로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본인이 느끼는 자각증상이 없다는 것이 콩팥질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대략 70%가 망가지고 30% 정도만 남았을 때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증상들도 피로감이나 가려움증, 소화불량, 소변량 감소, 불면증, 봇는 증상, 숨참 등 서서히 그리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나 고혈압, 당뇨 환자인 경우 평상시에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성인대상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콩팥 기능에 대한 혈액검사와 요단백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검사가 필수사항이라 기본적인 콩팥 기능 점검이 가능하므로 국가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존에 콩팥에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병원의 진료 스케줄을 지켜서 정기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콩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수칙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싱겁게 먹기, 즉 저염식사입니다. 소금은 성경 속에서도 식생활과 생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며,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마태복음 5:13 중)’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소금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 안의 수분을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동맥경화를 가져와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콩팥질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찌개류나 염장 음식들, 각



종 간편 식품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므로 이를 섭취를 줄여 하루 소금 3~5g 이내로 싱겁게 먹기를 실천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된 환자분이라면 단백질 즉 고기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하루에 대략 손바닥 크기 정도 이상의 고기 섭취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콩팥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중요한 병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질병이 있는 환자는 철저한 생활요법과 약물복용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질병 초기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콩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약물복용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몸속에서 대사과정을 거쳐 간이나 콩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설되는데, 콩팥 기능이 저

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이 배설 기능에 문제가 생기므로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높은 농도로 약물이 혈액 안에 존재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질환자가 어떤 약물을 복용하든 전문의를 통해 콩팥 기능에 따른 적정 용량을 확인하고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약물복용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의 경우에는 장기복용 시 콩팥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콩팥 기능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장기가 일정 단계 이상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신양생활을 통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남**



찬양곡 은혜의 주님(Through His Grace)과 찬송 복의 균원 강림하사(Nettleton)

은혜의 주님

김종길서의 악보로
영락교회 호산나찬양대 창립 50주년에 편성 ..

김영복 작사
김지현 작곡

Soprano Alto
Tenor Bass
Piano

(p) 90
90
mf
legato
이 려
p
워 낙심 되고
의지 할 이 없을 때
두려

복의 균원 강림하사 28

(㊂ 28)
R. Robinson, FSS
보통으로 92
이호화에서 여기까지 우러를 노는 있다
(상당 7 12) NETTLETON: 8.7.8.7.D.
Wyeth's Repository of Sacred Music, 1813

1. 복의 균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 전 자되네

한량 없이 자비 하심 측량 할길 없도 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 를 바라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천사들의 찬송 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빼진 우리를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구속 하신 그사 랑을 항상 찬송합니 다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하나님이 밝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찬양

2015년 호산나찬양대 창립 50주년기념 음악예배가 본당에서 있었다. 호산나찬양대의 젊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50주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여러 곡을 노래했지만 아직도 잊히지 않는 곡이 '은혜의 주님'이다. 곡 자체도 좋았지만, 가사가 주는 감동 눈물을 글썽이며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음악예배 직후 찬양대를 찾아 작곡자를 알아보았더니, 영락교회 출신 김지현 작곡가였다. 그는 영락교회에서 자랐고 영락유치원에서 시작하여 호산나찬양대를 섬겼으며,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뉴욕 주립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뉴저지에 있는 월리엄 할

로란(William F. Halloran)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뉴욕 초대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은혜의 주님〉은 영락교회 호산나찬양대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를 위해 작곡하여 현정한 곡으로 50년간 호산나찬양대와 교인들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은 찬양이다. 이 찬양을 드릴 때 “각자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 한다”라며 작곡자는 작곡의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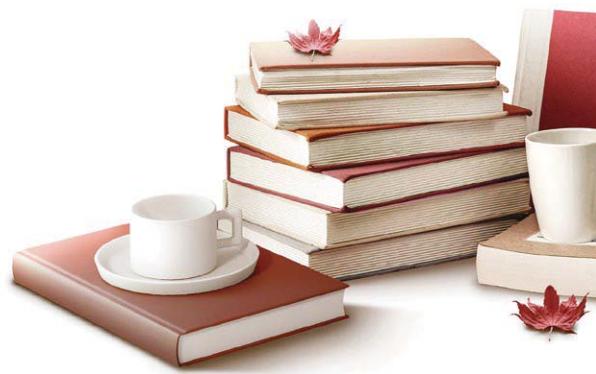
이 곡의 중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지금 까지 지내 온 것”이 나온다. 이 가사는 일본 동양 선교회 지도자였던 사사오 데쓰다부로 목사가 1897년 작시한 것을 작곡자 박재훈 목사가 작곡(301장)했다. 『통일찬송가, 1983』에는 같은 곡조의 찬송이 두 곡 있었다. 박재훈 목사님의 찬송곡 조 이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복의 근원 강림 하사”의 곡조가 그것이다. 이 곡조에 맞추어 “지금 까지 지내 온 것”을 불렀던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바로 “NETTLETON(네틀톤)”이란 이름을 가진 찬송곡조이다.

네틀톤이란 이름은 19세기 부흥사 아사헬 네틀톤(Asahel Nettleton, 1783~1844)의 이름을 딴 것이다. 찬송가는 그 운율만 맞으면 새로운 가사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콘트라파트(Contrafactum)이라 하여 본래의 멜로디에 맞는 다른 가사를 넣는 기법을 사용하여 신도들이 익숙하게 찬송가를 부르도록 한다. 예를 들면 “복의 근원 강림 하사”의 네틀톤 곡조에 다른 가사 “지금 까지 지내 온 것”을 넣거나 독일 국가 멜로디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가사를, 영국민요 앤니 로리(Annie Laurie) 멜로디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가사를 넣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틀린 것이 아니며 우리 찬송가에도 콘트라파트 기법의 찬송이 60여 곡이나 된다.

〈은혜의 주님〉 찬양에서 “복의 근원 강림 하사” 멜로디가 울려 퍼질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나 듣는 사람 모두가 뜨거웠던 은혜의 순간을 경험했다. 필자는 이 곡이 호산나찬양대만 부르는 것보다 전국의 찬양대가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곡을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 『중앙성가 30집』에 수록했고, 대한민국의 많은 찬양대가 이 곡을 부르게 되었다. 또한 2016년 부평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제13회 〈성가대합창제〉에서 갈보리 찬양대가 이 곡을 불러서 그 공간의 3,000여 명 청중뿐 아니라 이것이 유튜브로 전파되어 3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

이 곡의 가사는 김영옥의 시이다. 그녀도 영락교회 영어성경반과 시온찬양대를 섬기다 1990년에 작곡자 김지현과 결혼했다. 현재 뉴저지 공립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 중이다. 그녀는 호산나찬양대원을 포함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려워 낙심되고 의지할 이 없을 때
 두려움 어둔 그늘 날 둘러 덮을 때
 내 슬픔 깊은 탄식 주님 먼저 아시고
 나의 맘 나의 생각 지켜주신 주님
 내 마음 다 무너져 눈물로 밤을 지날 때
 나에게 오신 주님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 두려워 마라
 은혜의 주께 나 감사하리 내 모든 어둠 밝히신 주
 모든 두려움 물리치시고 참 소망 내게 주신 주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1-2절)
 은혜의 주님 나 찬양하리, 연약함 모두 고치신 주
 새 힘주시고 소망 주신 주, 내갈길 주 인도해
 은혜의 주님 아멘



은혜는 동일하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주의 자녀들의 삶은 감사, 확신, 사랑,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 가사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어려움과 낙심으로 시작한다.

얼마 전 찬양대의 한 집사님께서 연주한 지 5년 정도가 지난 이 곡을 보내주셨는데, 코로나19 시대의 갈급함과 함께 눈물로 이 곡들을 들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백하게 되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지나온 눈물의 골짜기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감사하며,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리라 확신한다. **안남**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아름다운 손길Ⅱ

다른 이의 마음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그 사람의 표정이 아닐까요. 누군가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면 저절로 따라 웃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따스함이 내 마음속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부 젊은이가 한 장의 연탄을 나르며 행복하게 미소짓는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아름다운 손길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절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온정의 손길을 더하는 따듯한 겨울을 우리 모두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김옥순 권사_종로·성북교구

전도대로 365 11월 21일 '예배로의 초대'



2021 영락교회 전도 캠페인인 '전도대로 365' 하반기 캠페인이 지난 10월 17일(주일)부터 시작되었다. 11월 21일(추수감사주일) '예배로의 초대'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은 교회 마당에 설치된 전도부스에서, 온라인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 및 QR코드를 통해 전도대상자 작성서를 제출하고 전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영락교회 전도부'를 검색하면 매주 게시되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3분 메시지 영상을 통해 복음전도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전도 캠페인 기간 전도되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 작성자가 미리 교구 전도사나 전도부스에 알려주면 예약된 예배 좌석을 마련해 드리고 있다. 전도지원은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계속된다.

문의: 전도부(☎ 02-2280-0366)



당회는 공석이 된 경조부장 후임에 안태운 장로를 임명했다.
안태운 장로는 2022년 말까지 경조부장으로 섬긴다.

교회소식

news letter

제2여전도회, 군선교를 위한 카페트럭(Cafe Truck) 기증

제2여전도회(회장 강신재 권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군선교 사역을 펼쳐가고자 장병들을 위한 <카페트럭>을 제작하여 지난 10월 3일(주일) 기증했다. 국군수송사령부 내 '수송중앙교회(군목 김상혁 목사)'의 선교 지원 요청을 받아 진행된 <카페트럭> 제작에는 4,486만 원의 제작비가 소요되었으며 제2여전도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카페트럭>은 전국의 수송사령부 예하 철도대와 철도역 내 장병휴게소(TMO)에서 장병 복음화를 위한 전도 활동과 함께 커피·와플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병들의 많은 인기



를 얻고 있다. 한편 <카페트럭> 기증 소식을 접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한 성도의 후원으로 <카페트럭 2호>가 제작되어 기증될 예정이다.

서울노회 제201회 정기노회, 목사 임직식 우리 교회에서 열려



서울노회 제201회 정기노회가 지난 10월 21일(목) 오전 8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목사 총대 331명, 장로 총대 2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노회는 오전 회무처리, 오후 목사 임직식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진행된 회무처리시간에는 조건회 목사(예능교회)가 노회장에 취임했으며, 양의섭 목사(왕십리중앙교회)와 김중효

장로(신일교회)가 부노회장에 선출됐다. 한편 우리 교회 정경섭 장로가 노회 회계에 임명됐다.

오후 2시부터 조건회 목사 사회로 열린 목사 임직식에선 김순미 장로의 기도 후, 전 노회장 서정오 목사(동승교회)가 '내 잣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날 임직식에선 30명의 교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우리 교회는 김윤기 목사를 포함한 15명(사진)이 안수를 받았다.

제201회 서울노회 본 교회 목사 안수

김윤기, 조익천, 신중건, 김성광, 임민국, 이효준, 이형진, 김우람, 현성인, 최정규, 박성율, 백현준, 노진석, 유태완, 윤형배

교계소식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제106회 예장 총회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6회 총회가 지난 9월 28일(화) 경기도 파주시 한소망교회에서 열렸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선거 조례에 따라 직전 105회 목사부 총회장인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으며, 목사부총회장은 이순창 목사(연신교회), 장로부총회장은 이월식 장로(경기중앙교회)를 선출했다.

한편 총회는 이날 교단의 에큐메니컬 신학 정체성을 정리한 문서인 ‘복음과 에큐메니컬 신학(부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뿌리와 정체성)’을 공식 채택했다.



취재 장덕진 편집전문위원 사진제공 국민일보

최찬영 선교사 별세

‘해방 후 첫 한국 선교사’이자 ‘영락교회 최초의 해외파송 선교사’였던 최찬영(사진) 선교사가 지난 10월 20일(한국시각) 미국 LA에서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26년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해방 후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후 6·25전쟁 중엔 군목으로 활동했다. 1955년 4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후, 다음 해 6월부터 4년간 방콕 제2교회 담임목사와 방콕 기독병원 원목으로 사역했다. 1962년부터 30년 동안 아시아인 최초로 태국과 라오스 성서공회 총무, 세계성서공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무를 역임하며 약 15억 권의 성경을 배포하는 데 이바지했다.

1992년 2월 선교사 은퇴 후엔 미국 풀러신학교 선

교대학원 한국학부에서 5년 간 연봉 1달러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고 2009년엔 LA <또감사선교교회>를 통해 한국 선교사로 파송 받아,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을 돌봤다. 2013년 건강이 나빠진 아내 김광명 선교사를 위해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엔 미국 LA의 은퇴자 마을에 살면서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고인의 장례예배는 11월 9일(화) LA 현지에서 가족장으로 드려질 예정이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 29페이지 <2021 여름성경학교의 기억> 중
유치부 ‘박도율’은 ‘김예찬’으로 바로 잡습니다.

한혜원 목사 별세

한경직 목사의 장남 한혜원 목사가 지난 9월 2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스빌에서 별세했다. 향년 83세. 한 목사의 장례예배는 그가 2005년 은퇴할 때까지 사역한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으며, <쉘로포드장로교회묘지>에 안장됐다. 아내 한혜순(Donna Rae Houser Han) 사모는 2015년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유족으로 아들 데이비드와 딸 베서니, 손주들이 있다.

1938년 평북 신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남산초등학교와 대광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57년 미국으로 건너가 한경직 목사가 수학했던 엠포리아대학을 거쳐 피츠버그신학교(신학 석사)와 피츠버그대학교(교육학 석사)를 졸업하고 1968년 목사 안수(미국장로교회)를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교회들을 섬기다 2005년 은퇴한 한 목사는 오랜 기간 미국장로교회(PCUSA) 세일럼노회에서 임원(부총무)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교회를 섬기는 한편 목사후보생들을 돋는 협력위원회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생전에 한 목사는 선친의 기념사업과 관련해 한국을 여러 번 찾았다. 2012년 다큐멘터리 영화 <한경직> 시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을 때 한 목사는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던 선친의 말씀이 평생 기



한혜원 목사의 유족들

역에 남아있다고 회고했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한 목사는 한경직 목사가 “나만의 아버지라기보다 여러 사람의 아버지 같았다”고 말했다. 영화 <한경직>에서도 당시 이웃들도 한 목사가 한경직 목사의 아들인 줄 몰랐을 정도였다 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생전에 한경직 목사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아버님은 정말 많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실 줄 아는 분이었어요. 모두의 화평을 위해서였지요.” 아들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때도 아버지 한경직 목사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 한 목사는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진로를 고민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뒤에 아버님께 편지로 말씀드렸더니, ‘누가 원한다고 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다렸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선친의 20주기를 맞아 영락교회에 “아버님의 신앙유산 계승을 위해 힘쓰고 있는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기울여 준 영락교회의 배려와 기도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1992년 한경직 목사 템플턴상 수상금 수여식에서
영국 필립공(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과 함께. 사진 왼쪽이 한혜원 목사

이석호 시무장로 별세, 10월 1일 교회장



이석호 장로가 지난 9월 29일(수) 향년 68세로 별세했다. 1953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한 고인은 2004년 12월 집사 안수 후 고등2부 부감, 상담부 차장 등을 역임했다. 생전 북한선교의 열정을 품었던 고인은 북한선교부 생필품사역팀장, 대북지원사역팀장으로 수년간 섬기며 탈북 자유인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했다. 2017년 12월 제45회 시무장로로 장립된 후에는 제1남선교회 부회장, 베다니찬양대 대장을 역임했고 올해 1월부터는 경조부장으로 섬겨왔다.

고인의 장례예식은 10월 1일(금)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목사가 집례하여 교회장으로 드려졌다. 김운성 목사가 '이제 후로는' (디모데후서 4:6~8) 제목의 설교를 통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고인과 장로 임직 동기인 임재광 장로가 조사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후 장지인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최한윤 목사 집례로 엄수된 하관예식을 끝으로 고인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유족으로 부인 김성희 권사와 1남 1여(영진, 영의)를 두었다.

조 사

이석호 장로님!

그 익숙했던 존함을 불러 봅니다.

충남 부여의 농촌에서 태어난 장로님께서는 달, 별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시고 목가적 자연의 새 소리를 노래로 벗 삼아 많은 시절을 보내셨기에 성격과 행동이 매우 자상하시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겸손하게 일생을 사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셨고 남다른 지혜와 총명으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땀 흘리고 노력하며 꿈을 이루셨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겸손과 인내로 존경 받는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뒤에는 어린 시절의 자연인으로 돌아가 고향땅에서 농장을 함께 만들어 과일나무 골고루 심고, 고추, 마늘 심어서 영락교인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쉼터

를 만들자고 하시면서 웃으시던 얼굴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생전에 주일이면 언제나 일찍 오셔서 청소하고 정리 정돈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던 손길이 그립습니다.

수요일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베다니 성가대원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던 믿음과 금요일에는 복음통일을 기도하시면서 자유인들을 위하여 혼신과 봉사로 북한선교에 힘썼던 그 열정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서 평안히 안식하세요.

2021년 10월 1일
장로45기 임재광

11 월 목회력

5일 (금)	구역활성화 심포지움
6일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7일 (주일)	찬양예배 성찬
14일(주일)	한경직기념사업회 시상식, 제직회
15일(월)~20일(토)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19일(금)	심방준비회
21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연합찬양 예배, 다음세대 기도회, 새가족환영회
28일(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창립기념 음악 예배, 사회봉사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 11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호 통권 573호

발 행 2021. 11.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청년위원 김효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윤
우대권 이현지 하예훈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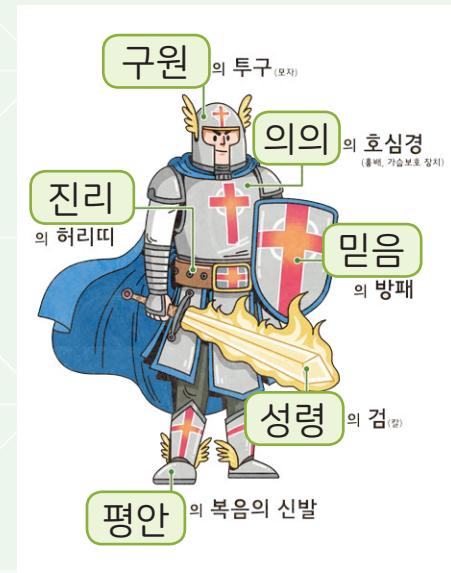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빈칸 채우기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www.youngnakmn.net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
아이폰용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추수감사절 감사편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편지에 담아보세요.

홍보출판부로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다음호 '아곱의 우물가' 코너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영락화랑

아름다운 손길 Ⅱ



김옥순, Watercolor on paper, 53.0×40.9cm, 2018년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27~28)